

해대(海帶)의 기원에 대한 고문헌적 연구

최고야, 추병길, 문병철, 이혜원, 이아영, 김호경

한국한의학연구원

Study on the Origin of the Haedae by Literature Review on the Classics of Oriental Medicine

Choi Goya, Choo Byungkil, Moon Byeongcheol, Lee Hyewon, Lee Ayeong, Kim Hokyoung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Haedae(海帶, haidai) is representative herb from seaweeds, but its origin is still confusing. Thus we analyzed its origin on the basis of classics of oriental medicine.

The scientific name of Haedae corresponds to *Zostera marina*, according to the folkloric use. But, it is *Laminaria japonica*, according to its habitat, morphological feature, and the korean name on the medical books in Joseon since 17c.

In the remote past, it seemed that two groups were segregated by the name of *Zostera marina* Haedae and *Laminaria japonica* Haedae.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is two trends were mixed up when medical knowledge was compiled in Song Dynasty era. Documental support inclined to *Laminaria japonica*, but it is too early to conclude that *Laminaria japonica* is the Haedae.

To prove this hypothesis,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investigate whether *Laminaria japonica* or *Zostera marina* has mentioned efficacies of Haedae used for the treatment of wen, San syndromes, edema, scrofula, etc. And we have need of research that solve the origin problem of Gonpo(*Laminariae thallus*) on the assumption that *Laminaria japonica* is Haedae.

Keyword : Haedae, Haidai, *Zostera marina*, *Laminaria japonica*

I. 서론

한약재의 기원 혼란에 관한 문제는 한의학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학명이라는 개념이 없던 과거에는 지역별로 같은 동식물을 지칭하는 명사가 천차만별이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였으므로, 시간과 공간의 격차로 인한 기원 혼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는 현대 분류학에서도 학자들간에 이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학명의 개념이 통용됨에 따라 각국 공정서에는 학명을 중심으로 한 기원 정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한국·중국·일본 등 국가별로 기원을 달리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에서 공정서와 다른 기원종이 사용되는 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진교(秦艽), 동충하초(冬蟲夏草), 자연동(自然銅), 계피(桂皮), 회향(茴香) 등 기원상 문제가 있는 한약재에 대한 기원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1)

접수 ▶ 2007년 10월 17일 수정 ▶ 2007년 11월 16일 채택 ▶ 2007년 12월 13일
교신저자 ▶ 김호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502 Fax 042-863-9434 E-mail hkkim@kiom.re.kr

1) 노승현, 이상인, 「秦艽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986;1: 41-53.

최근 웰빙 트렌드가 생활화되면서 해초 및 해조류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커지고 있는데,²⁾ 해대(海帶)는 대표적인 해초·해조류 약재의 하나로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에서는 거머리말(*Zostera marina*)로 기원을 규정하고 있으며³⁾, 퇴산(癩疔)·담핵(痰核)·영류(癭瘤)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여 왔다⁴⁾. 그런데,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비롯한 일부 문헌에는 해대가 다시마로 기록되어 있고⁵⁾, 해조(海藻)의 별명으로 ‘海帶’가 기재되기도 하는 등⁶⁾ 기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해대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학 고문헌에 수재된 해대의 기록에서 산지와 생육환경, 형태적 특징, 민속적 특징, 효능과 처방에서의 용례 및 조선시대 문헌에서의 향명 기록 등을 분석함으로써 거머리말과 다시마 중에서 어느 것이 그 기원인지 밝히고자 한다.

II. 본 론

1. 공정서에서 해대의 기원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에서는 해대를 거머리말(*Zostera marina*)의 전초로 규정하고 있으며⁷⁾, 중화인민공화국약전에는 수재되어 있지 않다⁸⁾. 현존하는 최대의 본초서인 『중화본초(中華本草)』에서는 ‘대엽조(大葉藻)’라는 약명으로 거머리말을 수재하고 있다.⁹⁾ 한편, 곤포(昆布)의

경우,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은 다시마(*Laminaria japonica*)를, 중화인민공화국약전은 ‘海帶’(*Laminaria japonica*)와 ‘昆布’(*Ecklonia kurome*)를 각각 기원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다시마의 중국어명이 ‘海帶’이며, 다시마과(*Laminariaceae*)의 중국어명 또한 ‘海帶科’이고, *Ecklonia*속(한국명 감태속)은 다시마과가 아닌 미역과(*Alariaceae*)라는 사실이다. 중국어 일반명과 약재명이 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추후 곤포의 기원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2. 고문헌에서 해대의 기원

1) 고문헌의 선정 및 조사방법

중국의 고문헌으로는 동아시아고문헌학의 원전데이터베이스로 널리 쓰이는 『흙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¹⁰⁾와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¹¹⁾를 저본으로 하였고, 한국의 고문헌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¹²⁾ 고문헌정보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문헌과 『동의보감』¹³⁾을 이용하였다.

먼저 검색이 가능한 전자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흙정사고전서』와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는 해대가 언급된 문헌을 모두 검색하여 정리했다. 『흙정사고전서』는 문연각사고전서전자판(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CD의 전문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子部 醫家類’ 범위(『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의 103종 문헌)에서 검색어 ‘海帶’로 검색한 결과 『성제총록찬요(聖濟總錄纂要)』의 15종의 문헌¹⁴⁾에서 해대가 언급되고 있었다.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고문헌정보(『가정교본(家政教本)』의 273종 문헌)에서는 검색어 ‘海帶’로 검색한 결과 『동서의학요의(東西醫學要義)』의 27종의 문헌¹⁵⁾에서 해대가 언급되고 있었다.

術出版社, 1999:19-20.

- 서영배, 임중근, 「冬蟲夏草의 基源에 관한 문헌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998;13(2):181-187.
- 최호영, 「시판되는 自然銅 및 假自然銅의 기원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999;14(1):23-27.
- 김인락, 엄태원, 주영승, 「수중 계피류의 감별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2003;18(4):229-234.
- 이영중, 김정일, 「茴香의 形態鑑別에 관한 研究」, 『대한본초학회지』, 2004;19(3):69-74.
- 2) 류지나, 「웰빙관심도에 따른 약선레스토랑 시장세분화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6:16.
- 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50호,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해대, 2006.
- 4) 許浚, 『(原本)東醫寶鑑』, 서울:남산당, 2001:314, 564, 565.
- 5) 상계서, 719.
- 6) 盧和, (2005), 『食物本草』卷2 菜類 藻,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藻有二種 皆可食 …… 一種海藻 …… 一名海帶
- 7) 식품의약품안전청, 전계서.
- 8) 國家藥典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藥典』, 北京:化學工業出版社, 2005.
- 9) 國家中醫藥管理局 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8, 上海:上海科學技

- 10)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 11) 『續修四庫全書』, 上海古籍出版社, 1995.
- 12) <http://jisik.kiom.re.kr/>
- 13) 許浚, 전계서, 2001.
- 14) 『證類本草』, 『濟生方』, 『仁齋直指』, 『宣明方論』, 『儒門事親』, 『醫學元戎』, 『瑞竹堂經驗方』, 『世醫得效方』, 『普濟方』, 『赤水玄珠』, 『證治準繩』, 『本草綱目』, 『景嶽全書』, 『禦纂醫宗金鑑』, 『蘭臺軌範』 등.
- 15) 『名方類證醫書大全』, 『本草備要』, 『本草精華』, 『本草彙英』, 『壽世寶訣』, 『袖珍經驗神方』, 『食物本草』, 『若山好古腫方撮要』, 『良方金丹』, 『醫鑑重磨』, 『醫林撮要續集』, 『醫方類聚』, 『醫方合編』, 『醫方活套』, 『醫寶』, 『宜彙』, 『仁濟志』, 『舟村新方』, 『八陣方』, 『鄉藥集成方』, 『鄉藥採取月令』, 『本草摘要』, 『朝鮮人筆談』, 『附方便覽』, 『醫林撮要』, 『醫門少鈔』, 『儒門事親』 등.

『속수사고전서』에서는 ‘子部 醫家類’ 범주(『황제내경 태소(黃帝內經太素)』의 311종 문헌)에 있는 본초학 전문서16)에서 해대가 언급된 문헌을 모두 찾은 결과 『본초품휘 정요(本草品彙精要)』의 6종의 문헌17)을 찾을 수 있었다. 『동의보감』에서는 「외형편(外形篇)」의 굴핵환(橘核丸) 외 8곳에서 해대가 언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고문헌 조사결과

『흙정사고전서』와 『속수사고전서』에 포함된 본초서18)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고문헌 정보, 『동의보감』 등에서 해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찾은 결과, 해대의 기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류본초(證類本草)』, “동해바닷속 바윗돌 위에 자란다. 해조에 비해 거칠고 부드러우며 질기고 길다. 지금 등주(登州) 사람이 이것을 말려 물건을 묶는 데 쓴다.” 19)

『향약채취월령(鄉藥採取月令)』, “다시마미역[多士摩藪]과 비슷한데 거칠고 길다.” 20)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해조의 한 종류로 해대가 있는데, 해조와 비슷하나 거칠고 길다. 등주 사람이 이것을 채취해서 말리는데, 부드럽고 질기므로 물건을 묶는 데 쓸 수 있다.” 21)

『본초품휘정요(本草品彙精要)』, “해조에 비해 거칠고 부드러우며 질기고 길다. 지금 등주에 난다. 동해바닷속 바윗돌 위에 자란다. 일년내내 나며, 아무 때나 채취한다. …… 해조와 비슷하나 거칠고 길다. 검은색이다.” 22)

『본초몽전(本草蒙筌)』, “유연해서 물건을 매디는 데 좋다.” 23)

『본초망목(本草綱目)』, “해대는 동해바닷속 바윗돌 위에 자라는데, 해조와 비슷하되 거칠고 부드러우며 질기고 길다. 지금 등주 사람이 이것을 말려 물건을 묶는 데 쓴다.” 24)

『본초원시(本草原始)』, “동해바닷속 바윗돌 위에 자라는데, 모양은 종이가닥처럼 얇고 길며 황백색이고, 유연해서 물건을 매디는 데 좋으므로 해대라고 이름하였다.” 25)

『동의보감』, “다시마 …… 동해바닷속에 자라며, 해조와 비슷하나 거칠고 길다.” 26)

『본초취언(本草彙言)』, “해대는 동해바닷속 바윗돌 위에 자라며, 해조와 비슷하나 거칠고 부드러우며 질기고 길다. 지금 등래(登萊) 사람이 벌에 말려서 물건을 묶는 데 쓴다. 새끼줄 대신 쓸 수 있다.” 27)

『본초비요(本草備要)』, “해조와 비슷하나 거칠고 부드러우며 약하고 길다.” 28)

『본초종신(本草從新)』, “해조와 비슷하나 거칠고 부드러우며 질기고 길다.” 29)

『약성통고(藥性通考)』, “해조와 비슷하나 거칠고 유연하며 길다.” 30)

『본초적요(本草摘要)』, “해조와 비슷하나 거칠고 부드러우며 질기고 푸르다.” 31)

上. 時[生]無時[採]無時. 收. 暴乾. 質. 類海藻而長. 色. 黑

- 16) 『新修本草』, 『本草衍義』, 『履巉巖本草』, 『鵠補雷公炮製藥性解』, 『藥品化義』, 『本草集要』, 『本草品彙精要』, 『本草蒙筌』, 『本草彙言』, 『本草原始』, 『本草通玄』, 『本經疏證』, 『增訂本草備要』, 『本經逢原』, 『本草從新』, 『藥性通考』, 『本草綱目拾遺』, 『本草求真』, 『神農本草經讀』 등 19종.
- 17) 『本草蒙筌』, 『本草彙言』, 『本草原始』, 『增訂本草備要』, 『本草從新』, 『藥性通考』 등.
- 18) 欽定四庫全書의 본초서는 『證類本草』, 『湯液本草』, 『本草綱目』, 『神農本草經疏』, 『本草乘雅半偈』, 『神農本草經百種錄』 등 6종.
- 19) 唐慎微 외, (1999), “『證類本草』” 卷9 草部中品之下·海帶,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出東海水中石上 比海藻而益柔韌而長 今登州人乾之以東器物
- 20) 俞孝通, 盧重禮, 樸允德, (2005), “『鄉藥採取月令』” 『十二月採』,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海帶 似多士摩藪而巖長
- 21) 俞孝通 외, (2005), “『鄉藥集成方』” 卷79 草部中品之下·海藻”,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又有一種海帶 似海藻而巖且長 登州人取乾之 柔韌可以繫束物
- 22) 劉文泰 외, 『本草品彙精要』 卷12 草部中品之下·海帶, 『續修四庫全書』 991, 上海古籍出版社, 1995:28.
苗[圖經曰]此海藻 更巖柔韌而長 今登州. 地[圖經曰]生東海水中石

- 23) 陳嘉謨, 『本草蒙筌』 卷3 草部下·海帶, 『續修四庫全書』 991, 上海古籍出版社, 1995:606.
柔軟堪以繫物
- 24) 李時珍, (1999), “『本草綱目』” 卷19 草之八·海帶,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禹錫曰 海帶出東海水中石上 似海藻而粗柔韌而長 今登州人乾之以東器物
- 25) 李中立, 『本草原始』 卷2 草部中·海帶, 『續修四庫全書』 992, 上海古籍出版社, 1995:623.
出東海水中石上 形似紙條薄而且長 黃白色 柔軟堪以繫束物 故名海帶
- 26) 許浚, 전게서, 2001:719.
다시마 …… 生東海中 似海藻而益且長
- 27) 倪朱謨, 『本草彙言』 卷7 草部·水草類·海帶, 『續修四庫全書』 992, 上海古籍出版社, 1995:260.
劉氏曰 海帶生東海水中石上 似海藻而粗柔韌而長 今登萊人曬乾 以束器用 可代繩索
- 28) 汪昂, (2005), “『本草備要』” 卷1 草部·海帶”,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似海藻而粗 柔弱而長
- 29) 吳儀洛, 『本草從新』 卷6 草部·水草類·海帶, 『續修四庫全書』 994, 上海古籍出版社, 1995:301.
似海藻而粗柔韌而長
- 30) 太醫院, 『藥性通考』 卷5 海帶昆布, 『續修四庫全書』 994, 上海古籍出版社, 1995:490.
似海藻而粗柔軟而長
- 31) 저자 미상, (2005), “『本草摘要』” 卷1 草部·石草類·海帶”,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1) 산지와 생육환경

해대의 산지에 대해서는 동해, 등주 또는 등래 지역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상문헌 중 가장 이른 것은 『증류본초』로 이는 송대(宋代)의 문헌이며 이후의 문헌들은 대부분 이 책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증류본초』에서 ‘지금 등주 사람이……’라고 기록하였으므로, 기재된 ‘등주’라는 지명은 송대를 기준으로 함이 마땅하다. 송대에 간행된 지도책인 『역대지리지장도(歷代地理指掌圖)』에 따르면, 등주는 현재의 산둥반도 북안(北岸)에 해당한다. 『본초휘언』에서는 ‘등萊’, 곧 등주와 내주(萊州)를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내주 또한 등주와 인접한 지역이다. 동해 또한 현재의 황해(보하이해 포함)를 가리키므로, 문헌상 해대의 산지는 산둥반도 인근, 특히 보하이해 방향의 해안이다.(Figure. 1) 다른 지역을 언급한 문헌은 없었다.

거머리말은 북반구 온대 이북의 여러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데³²⁾, 중국에는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연안에 자생한다³³⁾. 다시마의 경우 한국, 중국과 일본 대부분의 연안에서 양식하고 있으나 본디 아한대성 해조이므로 한국에는 울진 이북의 동해안에서³⁴⁾, 중국에는 역시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연안에서³⁵⁾ 자생한다. 거머리말과 다시마의 분포는 등래 지역이라는 고문헌의 기록과 일맥상통한다.

생육환경에 대한 설명으로는 역시 『증류본초』에서 ‘바윗돌 위에 자란다’고 기록한 것이 유일하며, 후대의 문헌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되었다. 그런데 다시마는 암초 등에 착생하는 조류(藻類)인 반면, 거머리말의 경우 사질(沙質) 퇴적물에 뿌리내리고 자라는 식물로³⁶⁾ 바위에 붙어 자라지는 못한다.

따라서 산지를 기준으로 하면 거머리말과 다시마 모두 문헌상 해대의 산지와 어긋나지 않으나, 생육환경을 기준으로 하면 거머리말보다는 다시마가 해대의 기원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似海藻而粗柔韌而青

32) UNEP-WCMC, (n. d.), “Zostera marina”, UNEP-Species Database[online], UNEP-WCMC, <http://sea.unep-wcmc.org/isdb/Taxonomy/tax-species-result.cfm?source=plants&genus=Zostera&species=marina>, (2007.9.21).

33) 國家中醫藥管理局 中華本草編委會, 전제서.

34) 강래선, 「한국 동해안산 다시마의 발아, 성장 및 생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9:10.

35) 國家中醫藥管理局 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 1,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454.

36) 권천중, 「한반도에 자생하는 거머리말의 생육지 환경에 따른 형태적인 변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1:1, 15.



<Figure. 1> Locations of Deng-zhou(登州), Lai-zhou(萊州) and Donghai(東海)³⁷⁾.

(2) 형태적 특징

해대의 형태적 특징에 관한 기록으로는 『증류본초』의 “해조에 비해 거칠고[麤] 부드러우며 질기고 길다.”는 기록이 처음이며, 이후의 문헌들에서도 대부분 큰 변동 없이 인용되었다. 다만 『본초원시』에서는 이에 더하여 “모양은 종이가닥처럼 얇고 길다.”라고 하여 거머리말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으나, 여타 문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형태비교의 대상인 해조는 공정서상 모자반과에 속하는 바닷말인 양서채(羊棲菜, Sargassum fusiforme) 또는 해호자(海蒿子, S. pallidum)이며, 이들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모자반이나 툫과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다. 그런데 거머리말과 다시마 모두 해조와는 외부형태가 많이 다르다. 굳이 유사한 것을 선정한다면 현화식물인 거머리말보다는 같은 바닷말인 다시마가 더 근사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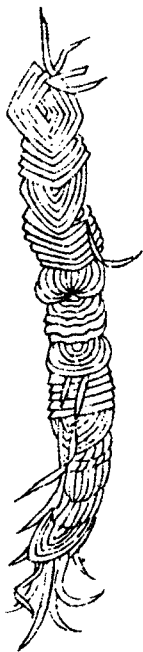
‘麤(또는 麤, 粗)’라는 표현에는 촉감이 곱끄럽다는 뜻 외에, ‘크다·성글다’는 뜻도 있으며, 비교의 목적으로 ‘-보다 조금 더’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어떠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어떻게 해

37) 稅安禮, 『歷代地理指掌圖』, 『續修四庫全書』 585, 上海古籍出版社, 1995:473.

석하는 ‘해조에 비해 부드럽고 질기며 길다’ 는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부드럽대[柔]’ 는 것은 여리거나 무르다는 뜻도 담겨 있으나, ‘질기다’ 는 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촉감이 매끄럽거나 탄력성이 있다는 뜻으로 봄이 마땅하다. 거머리말의 경우 하늘하늘거리는 탄력성이 있으며, 다시마의 경우 거기에 더해 표면이 매끄럽기도 하므로, 거머리말과 다시마 모두 ‘부드럽다’ 는 묘사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질기대[韌·鞫]’ 는 내용에서 대해서도, 거머리말과 다시마 모두 해조에 비해서는 질기므로 어긋나지 않는다. 한편, 해조 중에서 양서채는 길이가 20-50cm이나 2m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조차는 30-100cm이다.³⁸⁾ 그런데 거머리말은 30-50cm³⁹⁾이므로 해조에 비해서 길다고 할 수 없다. 반면에 다시마는 2-6m⁴⁰⁾로 해조에 비해 월등히 길다.

색상에 대해서는, 황백색이라고 한 『본초원시』와 검은색이라고 한 『본초품휘정요』의 기록만이 있다. 거머리말은 파와 유사하게 근경과 잎의 하단을 제외한 전체가 녹색이며, 건조하면 녹색이 내지 갈색이 되는 반면, 다시마는 흑갈색이다. 『본초원시』를 기준으로 하면 거머리말과 다시마 모두 맞지 않게 되며, 『본초품휘정요』를 기준으로 하면 다시마만 부합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다시마가 거머리말보다 더 해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 민속적 특징

『증류본초』에 “지금 등주 사람이 이것을 말려 물건을 묶는 데 쓴다.” 고 기록한 이래, 여러 문헌에서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초원시』에 등재된 해대의 삽화(Figure. 2) 또한 길고 가느다란 띠 같은 것을 엮어 놓은 모양이고, “가닥 가닥을 새끼처럼 엮은 것이다.”⁴²⁾라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이 ‘물건을 묶는 데 쓴다’ 는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시마보다는 거머리말과 부합하게 된다. 다시마는 다소 질기기는 하나, 마르면 딱딱하게 굳고 쉽게 부러지므로 새끼로 꼬아 물건을 묶는 데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에 거머리말을 비롯한 해초류는 현재에도 그 섬유를 엮어 바닥갈개나 바구니 등으로 만들어 쓰고 있으므로 고문헌의 기록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같이 민속 용도를 기준으로 하면 거머리말이 더 해대의 기원에 타당하다.

(4) 성미·귀경과 효능 및 처방에서의 용례

해대의 성미(性味)에 대한 기록은 『유문사친(儒門事親)』을 비롯한 9건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표 1, Figure. 3, 4), 약성(藥性)은 한(寒)하고 약미(藥味)는 함(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경(歸經)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표 1. 해대의 성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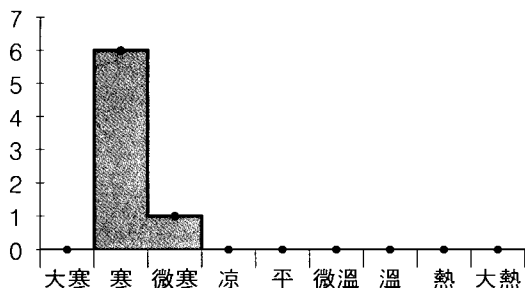
문헌	性	味
儒門事親 ⁴³⁾	寒	鹹
普濟方(儒門事親 인용) ⁴⁴⁾	寒	鹹
本草品彙精要 ⁴⁵⁾	寒洩	苦鹹
本草綱目(嘉祐本草 인용) ⁴⁶⁾	寒	鹹
本草原始(嘉祐本草 인용) ⁴⁷⁾	寒	鹹
景嶽全書(海藻) ⁴⁸⁾	微寒	苦鹹
本草彙言 ⁴⁹⁾	寒	鹹
舟村新方 ⁵⁰⁾	.	鹹
醫鑑重磨 ⁵¹⁾	.	鹹

『문연각사고전서전자판(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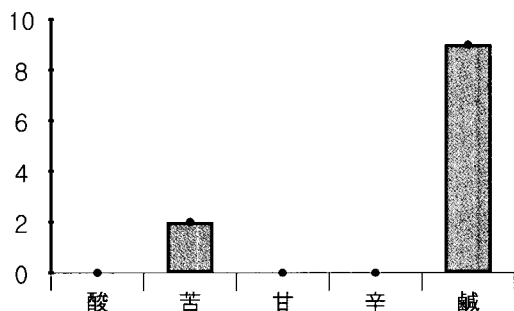
43) 張從正, (2005), “『儒門事親』卷11 風門”,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44) 朱橚 외, (1999), “『普濟方』”卷294 「癰瘤門」 癰,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45) 劉文泰 외, 전게서.
 46) 李時珍, 전게서.
 47) 李中立, 전게서.
 48) 張介賓, (1999), “『景嶽全書』”卷49 水石草部,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海藻·海帶·昆布性用畧同. 味苦鹹, 性微寒, 陰也, 降也…….
 49) 倪朱謨, 전게서.
 50) 申曼, (2005), “『舟村新方』”卷3 大人編·藥性歌”,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51) 李圭峻, (2005), “『醫鑑重磨』”百病總括篇下·雜病·癰瘤”,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38) 國家中醫藥管理局 中華本草編委會, 전게서, p.463.
 39) 상게서, p.19.
 40) 상게서, p.454.
 41) 상게서.
 42) 李中立, 전게서.
 此係散條 作成編者

정보' 및 『동의보감』을 검색한 결과, 해대가 포함된 처방은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의 골핵원(橘核元)을 비롯하여 100건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중 처방명과 약재구성이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총 46건이었고, 주치증은 주로 영기(癭氣), 퇴산(瘰癧), 십수(十水), 나력(癭癧) 등이었다(표 2).



<Figure. 3> Properties of haedae(海帶).



<Figure. 4> Tastes of haedae(海帶).

그런데, 여러 문헌에서 보이는 ‘해대환(海帶丸)’이라는 이름의 처방이 색다른 특징을 보인다. 해대환이 처음 수재된 『인재직지(仁齋直指)』에서는 해대·패모(貝母)·청피(靑皮)·진피(陳皮)로 구성되었고⁵²⁾, 이를 인용한 『보제방(普濟方)』⁵³⁾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의방유취(醫方類聚)』⁵⁴⁾와 『적수현주(赤水玄珠)』⁵⁵⁾에서는 동일한 처방에 해대 대신에 해조가 들어가고, 이후 『동의보감』⁵⁶⁾에서는 다시 해대로 환원된다. 해조와 해대 사이에도 기원상의 혼란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52) 楊士瀛, (1999), “『仁齋直指』” 卷22 癭瘤·癭瘤證治,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53) 朱橚 외, 전계서, 「癭瘤門」氣癭.
 54) 集賢殿 편, (2005), “『醫方類聚』” 卷181 「癭瘤門」衛生寶鑑·疣瘤”, 韓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韓國韓의학연구원, (2007.9.21).
 55) 孫一奎, (1999), “『赤水玄珠』” 卷30 癭癧門,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56) 許浚, 전계서, 2001:564.

표 2. 해대를 포함한 처방의 주치증

주치증	언급횟수
癭氣(癭, 癭瘤, 氣癭, 項癭, 贅) ⁵⁷⁾	44
瘰癧(癩疔, 陰瘡) ⁵⁸⁾	25
十水(水腫) ⁵⁹⁾	10
癭癧(痰核, 耳後痰核) ⁶⁰⁾	9
急心氣腹痛 ⁶¹⁾	3
中風口噤(中風牙關緊急) ⁶²⁾	3
脣瘡(緣脣瘡) ⁶³⁾	2
赤白帶下 ⁶⁴⁾	1
吐血不止 ⁶⁵⁾	1
鼓脹 ⁶⁶⁾	1

57) 張介賓, 전계서, 「外科」卷64.
 許浚, 전계서, 2001:564-565.
 朱橚 외, 전계서, 「癭瘤門」氣癭, 「癭瘤門」癭, 「癭瘤門」癭咽喉噎塞, 「癭瘤門」五癭.
 吳謙 편, (1999), “『禦纂醫宗金鑑』” 卷72 編輯外科心法要訣·發無定處上·癭瘤,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張從正, (2005), “『獨治於外者』” 卷12”, 韓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韓國韓의학연구원, (2007.9.21).
 李圭峻, 전계서.
 王好古, (1999), “『醫墨元戎』” 卷5 治癭驚鷺丸,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內醫院 편, (2005), “『醫林撮要續集』” 卷2 瘡瘍門”, 韓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韓國韓의학연구원, (2007.9.21).
 集賢殿 편, 전계서, 「癭瘤門」得效方·項癭, 「癭瘤門」拔粹方, 「癭瘤門」聖惠方·治癭氣諸方, 「癭瘤門」衛生寶鑑·疣瘤, 「癭瘤門」衛生易簡方·癭瘤, 「癭瘤門」治病百法·三法六門, 「癭瘤門」治病百法·禦藥院方, 「癭疽」聖惠方·治小兒癭氣諸方 卷247.
 楊士瀛, 전계서.
 孫一奎, 전계서.
 王肯堂, (1999), “『證治準繩』” 卷117 外科·癭瘤,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58) 熊宗立, (2005), “『名方類證醫書大全』” 卷15 陰癩”, 韓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韓國韓의학연구원, (2007.9.21).
 상계서, 「氣·疝氣」卷7.
 許浚, 전계서, 2001:314.
 錦襄散人, (2005), “『宜彙』” 卷2 癩疔”, 韓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韓國韓의학연구원, (2007.9.21).
 集賢殿 편, 전계서, 「諸氣門四」醫方大成 卷89, 「諸疔門二」朱氏集驗方 卷90, 「諸疔門二」得效方 卷90, 「陰癩門」得效方 卷91.
 朱橚 외, 전계서, 「癩疔門」諸疔 卷247, 「癩疔門」諸癩 卷250, 「癩疔門」膀胱氣痛 卷250, 「癩疔門」腎氣 卷250.
 嚴用和, (1999), “『濟生方』” 卷3 陰癩,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都鎮羽, (2005), “『東西醫學要義』” 東西醫學要義遺補方·前陰門”, 韓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韓國韓의학연구원, (2007.9.21).
 黃度淵, (2005), “『醫方活套』” 下統”, 韓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韓國韓의학연구원, (2007.9.21).
 危亦林, (1999), “『世醫得效方』” 卷9 陰癩,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상계서, 「諸疔」卷3.
 李昌雨, (2005), “『壽世寶訣』” 卷4 本草抄選·小兒門·卵”, 韓의

표 3. 해대를 포함한 처방의 구성약재 등장횟수

등장횟수	약재명(횟수)
10회 이상	海帶(46), 海藻(38), 昆布(29), 海蛤·海粉(14)
5-9회	豬鬃(9), 木通(8), 連翹(8), 海螵蛸(8), 羊鬃(7), 甘草(6), 木香(6), 訶子(5), 澤瀉(5)
4회	甘遂, 廣朮·蓬朮, 大戟, 章柳根, 陳皮, 青皮, 杏仁
3회	桂心·官桂, 橘核, 當歸, 薄荷, 半夏, 檳榔, 續隨子, 芫花, 川棟子, 青鹽, 玄胡索, 厚樸
2회	金箔, 雷丸, 桃仁, 馬齒花, 麝香, 鬱李仁, 丁香, 枳實, 珍珠, 天南星, 川烏, 巴豆, 貝母, 玄參, 茴香
1회	乾薑, 輕粉, 鷄卵殼, 高良薑, 苦參, 款冬花, 槐枝, 狗膽, 金鈴子肉, 亂髮, 露蜂房, 大腹皮, 大黃, 桃肉, 桃枝, 獨活, 芒硝, 麥麩, 木鼈子, 沒藥, 文蛤, 斑貓, 礬石, 白芨, 白薇, 白梅, 白芷, 白朮, 附子, 皂莢, 粉霜, 三稜, 桑寄生, 商陸, 桑枝, 石燕, 石花, 蟬退, 松蘿, 水銀砂珠, 荔枝殼, 蜈蚣, 五靈脂, 烏梅, 吳茱萸, 烏藥, 瓦楞子, 礞砂, 龍腦, 龍膽草, 牛膝, 雄雞鷄, 柳枝, 硫黃, 赤芍藥, 葶藶子, 皂角刺, 棗枝, 川芎, 天仙子, 天花粉, 青楸子, 草烏, 縮砂, 沈香, 菟絲子, 通草, 破故紙, 巴戟, 蒲黃, 夏枯草, 何首烏, 海螺, 海馬, 海燕, 海蠶沙, 海紅蛤, 香附子, 葫蘆巴, 琥珀, 黃芪, 黑糖

처방에서 해대와 함께 사용된 약재는 해조, 곤포, 해합(海蛤)이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해표초(海螵蛸), 저염(豬鬃), 양염(羊鬃), 목통(木通), 연교(連翹) 등도 함께 쓰인 경우가 잦았다(표 3).

처방용례에서는 해조, 곤포, 해대가 함께 사용된 경우가 많았으며, 성미도 같거나 비슷하다고 기록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인 복령(茯苓)과 저령(豬苓)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해조, 곤포, 해대가 모두 비슷한 분류에 속하는 바닷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령과 택사(澤瀉)의 경우도 있으므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주촌신방(舟村新方)』의 한 이름 없는 처방에는 ‘암닭과 수닭 한 마리씩에 해대 한 줄기, 흑당(黑糖) 한냥을 넣고 폭 고아서 복용’ 하라는 용법이 기재되어 있다.⁶⁷⁾ 여기서 ‘한 줄기’라는 용량을 다른 약재의 용량과 비교하면, 너비 3-5mm에 길이 30-50cm에 불과하며 갈래져 있는 거머리말보다는 다시마를 가리킨다고 봄이 합당하다.

(5) 조선시대 문헌에서의 향명(鄉名) 기록

해대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본초학적 기록으로 『향약채취월령』(1431)에 ‘해대는 다시마미역[多士摩藿]과 비슷하나 거칠고 길다’는 언급⁶⁸⁾이 있다. 『증류본초』 이래의 ‘해조와 비슷하다’는 기록과 대조하면, 『향약채취월령』에서는 해조를 다시마로 인식했으며 해대는 다시마와 유사한 바닷말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의 함길도 공물 목록에 미역[藿], 다시마[多絲爾], 곤포, 해대가 함께 열거⁶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는 해대와 곤포를 미역이나 다시마와는 다른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조선시대 의서 중, 해대 및 유사 한약재를 향명으로 명시한 문헌은 표 4와 같다.

이와 같이, 17세기 이후의 조선의서에서는 해대의 기원을 일관되게 다시마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곤포에 대해서는 다시마미역, 다시마, 곤포, 아랑면 등으로 혼란스럽게 나타났다. 특히 다른 약재와는 달리 ‘곤포’라는 한글발음이

학자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王肯堂, 전계서, 「外科」下部·陰瘡 卷111.
 徐大椿, (1999), “『蘭臺軌範』” 卷4 疝·疝方,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59) 黃度淵, (2005), “『附方便覽』” 卷18 浮腫”, 韓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集賢殿 撰, 전계서, 「水腫門」 卷128 宣明論, 「雜病門一」 卷195 三法六門·下劑.
 朱橚 撰, 전계서, 「水病門」 卷191 十水, 「水病門」 卷191 水腫.
 劉完素, (1999), “『宣明方論』” 卷8 木濕門,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張從正, 전계서, 「下劑」 卷12.
 60) 吳謙 撰, 전계서, 「編輯外科心法要訣·項部·瘰癧」 卷64.
 集賢殿 撰, 전계서, 「瘰癧門二·外科集驗方·玉機微義」 卷180.
 王肯堂, 전계서, 「外科·項部·瘰癧馬刀」 卷108.
 申曼, 전계서, 「全·腫」, 「大人編·痰病」 卷3.
 錦裏散人, 전계서, 「結核」 卷2.
 孫一奎, 전계서.
 李麟宰, (2005), “『袖珍經驗神方』” 卷下 男婦通治門·第六十一章 癰疽及諸瘡”, 韓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許浚, 전계서, 2001:564.
 61) 沙圖穆蘇, (1999), “『瑞竹堂經驗方』” 卷2 諸痛,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原文及全文檢索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9.21).
 集賢殿 撰, 전계서, 「諸氣門四·經驗祕方」 卷89, 「心腹痛門·瑞竹堂方」 卷93.
 62) 集賢殿 撰, 상계서, 「諸風門·煙霞聖效方」 卷24.
 俞孝通 撰, 전계서, 「風門·中風口噤不開」 卷1.
 朱橚 撰, 전계서, 「諸風門·風口噤」 卷92.
 63) 集賢殿 撰, 전계서, 「諸瘡門·聖濟總錄」 卷191.
 朱橚 撰, 전계서, 「上部瘡門·唇瘡」 卷300.
 64) 朱橚 撰, 상계서, 「婦人諸疾門·赤白帶下」 卷331.
 65) 申曼, 전계서, 「全·血」.
 66) 孫一奎, 전계서, 「攻擊泄下之劑」 卷5.

67) 申曼, 전계서, 「全·血」.
 吐血不止 雄雞鷄一首 入海帶一條 黑糖一兩重 煎膏 頻服二三次 神效
 68) 俞孝通, 盧重禮, 樸允德, 전계서.
 海帶 似多士摩藿而龜長
 69) 實錄廳 撰, (2005), “『世宗實錄』” 地理志·鹹吉道”, 朝鮮왕조실록 [온라인], 국사편찬위원회, (2007.9.21).
 厥貢 豹皮·金熊皮·阿羊鹿皮·獐皮·狸皮·狐皮·豹尾·狐尾·鹿角·阿羊鹿角·酥油·黃蠟·乾豬·大口魚·年魚·古道魚·全鮑·藿·多絲爾·昆布·海帶·綠礪·紅花·芝草·樺皮.

기재된 경우도 있는데, 다시마의 경남지역 방언이 ‘곤포’⁷⁰⁾임을 감안할 때, 미역과에 속하는 바닷말인 곱피(Ecklonia stolonifera)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어문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해대 및 유사 한약재에 대한 조선의서에서의 향명 기재

문헌	연대	향명			
		海帶	昆布	海藻	海藻
救急簡易方診解 ⁷¹⁾	1489	.	다스마 머욱	바닷말	.
醫方合編	16세기 이후	.	다스마 72)	말 ⁷³⁾	.
東醫寶鑑 ⁷⁴⁾	1613	다스마	.	.	머욱
診解臟藥症治方 ⁷⁵⁾	17세기 이후	.	.	말자반 76)	.
若山好古腫方撮要 ⁷⁷⁾	17세기 이후	다스마	.	.	머욱
良方金丹 ⁷⁸⁾	조선 후기	다스마	곤포	말	머욱
舟村新方 ⁷⁹⁾	1687	다시마	곤포	말음	미역
朝鮮筆談 ⁸⁰⁾	1748	多士麻	阿良免 ⁸¹⁾	.	.
解惑辨疑 ⁸²⁾	19세기 초	.	.	말음	.
仁濟志 ⁸³⁾	19세기 초	다스마	.	머욱	.
宜彙	1871	.	.	딴름 ⁸⁴⁾	우무 ⁸⁵⁾
本草精華 ⁸⁶⁾	19세기 말	다스마	.	말 ⁸⁷⁾	.

7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두산동아, 1999.

71) 尹堯 외, (2005), “『救急簡易方診解』 卷2 噎塞”,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72) 저자 미상, (2005), “『醫方合編』 卷2 疝部·村教”,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73) 상계서, 『皮風·經驗·風丹』 卷2.

74) 許浚, 전계서, 2001:719.

75) 許浚, (2005), “『診解臟藥症治方』 木香保命丹”,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76) ‘말자반’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바닷말인 모자반(馬尾藻, Sargassum fulvellum)일 것이다. 말[藻]의 일본어 발음이 모(も)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77) 저자 미상, (2005), “『若山好古腫方撮要』 藥性”,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78) 저자 미상, (2005), “『良方金丹』 藥材俗名·藥部”,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79) 申旻, 전계서.

80) 野呂實夫, (2005), “『朝鮮人筆談』 上”,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81) ‘아량면(阿良免)’은 한자음역어임이 분명하지만, 우리말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일본어로 아라메(アラメ)는 미역과에 속하는 바닷말인 대황(大荒, Eisenia bicyclis)을 뜻한다. 『朝鮮人筆談』이 조선인 통신사와 일본인 의원간의 필담 기록임을 상기해 볼 때, 아량면은 곧 대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할

Ⅲ. 결 론

대표적인 해초·해조류 약재이며 기원 혼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해대의 기원을 밝히고자 한의학 고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해대의 기원으로는 거머리말(Zostera marina)과 다시마(Laminaria japonica)의 두 가지가 혼란되고 있으며, 다시마의 중국어 일반명이 ‘海帶’라는 점이 혼란의 원인 중 하나이다.

2. 고문헌상의 산지를 기준으로 하면 거머리말과 다시마 모두 해대의 기원에 합당하다.

3. 고문헌상의 생육환경을 기준으로 하면 다시마만 해대의 기원에 부합한다.

4. 고문헌상의 형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면 거머리말보다는 다시마가 더 해대의 기원에 합당하다.

5. 고문헌상의 민속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면 거머리말만 해대의 기원에 부합한다.

6. 고문헌상 해대의 주치증으로는 영기(癭氣), 퇴산(瘰癧), 십수(十水), 나력(癰癤) 등이 있었으며, 해조, 곤포, 해합과 함께 쓰이는 예가 많았다.

7. 17세기 이후 조선의서에서의 향명 기록에 따르면 해대는 다시마를 가리킨다.

고문헌의 기록 자체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과거에는 거머리말을 해대라고 부르던 집단과 다시마를 해대라고 부르던 집단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송대에 의료지식이 집대성되면서 두 집단의 경험지식이 섞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문학적 입장에서 해대가 거머리말과 다시마 둘 중 어느 하나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기록의 지지’는 다시마쪽으로 기울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수 있다.

82) 李鎭夏, (2005), “『解惑辨疑』 直指方四”,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83) 徐有渠, (2005), “『仁濟志』 卷24 附餘·炮製鼓例·艸部”,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84) 錦裏散人, 전계서, 『癭疽·腫丹』.

85) 상계서, 『癭疽·疔瘡』.

86) 저자 미상, (2005), “『本草精華』 草部·水草類”,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9.21).

87) 주석에 ‘一名海藻’라 하여, 海藻를 海帶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추후 해대의 주치증인 영기, 퇴산, 심수, 나력 등에 대한 다시마 또는 거머리말의 효능 연구를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대를 다시마라고 가정할 경우, 차후 끈포의 기원 문제도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VI. 참고문헌

1. 노승현, 이상인, 「秦芫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986;1.
2. 서영배, 임중근, 「冬蟲夏草의 基源에 관한 문헌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998;13(2).
3. 최호영, 「시판되는 自然銅 및 煨自然銅의 기원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999;14(1).
4. 김인락, 엄태원, 주영승, 「수중 계괴류의 감별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2003;18(4).
5. 이영중, 김정열, 「茴香의 形態鑑別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2004;19(3).
6. 류지나, 「웰빙관심도에 따른 약선레스토랑 시장세분화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6.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50호,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 2006.
8. 許浚, 『(原本)東醫寶鑑』, 서울:남산당, 2001.
9. 盧和, 『食物本草』,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10. 國家藥典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藥典』, 北京:化學工業出版社, 2005.
11. 國家中醫藥管理局 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 8,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12. 唐慎微 외, “『證類本草』”,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3. 俞孝通, 盧重禮, 樸允德, “『鄉藥採取月令』”,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14. 俞孝通 외, “『鄉藥集成方』”,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15. 劉文泰 외, 『本草彙編精要』, 『續修四庫全書』 991, 上海古籍出版社, 1995.
16. 陳嘉謨, 『本草蒙筌』, 『續修四庫全書』 991, 上海古籍出版社, 1995.
17. 李時珍, “『本草綱目』”,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8. 李中立, 『本草原始』, 『續修四庫全書』 992, 上海古籍出版社, 1995.
19. 倪朱謨, 『本草彙言』, 『續修四庫全書』 992, 上海古籍出版社, 1995.
20. 汪昂, “『本草備要』”,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1. 吳儀洛, 『本草從新』, 『續修四庫全書』 994, 上海古籍出版社, 1995.
22. 太醫院, 『藥性通考』, 『續修四庫全書』 994, 上海古籍出版社, 1995.
23. 저자 미상, “『本草摘要』”,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4. UNEP-WCMC, “Zostera marina”, UNEP-Species Database[online], UNEP-WCMC.
25. 강래선, 「한국 동해안산 다시마의 발아, 성장 및 생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9.
26. 國家中醫藥管理局 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 1,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27. 권천중, 「한반도에 자생하는 거머리말의 생육지 환경에 따른 형태적인 변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1.
28. 稅安禮, 『歷代地理指掌圖』, 『續修四庫全書』 585, 上海古籍出版社, 1995.
29. 張從正, “『儒門事親』”,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30. 朱橚 외, “『普濟方』”,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31. 張介賓, “『景嶽全書』”,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32. 申旻, “『舟村新方』”,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33. 李圭峻, “『醫鑑重磨』”,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34. 楊士瀛, “『仁齋直指』”,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35. 集賢殿 편, “『醫方類聚』”,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36. 孫一奎, “『赤水玄珠』”,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37. 吳謙 편, “『禦纂醫宗金鑑』”,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38. 王好古, “『醫壘元戎』”,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39. 內醫院 편, “『醫林撮要續集』”,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 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40. 王肯堂, “『證治準繩』”,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41. 熊宗立, “『名方類證醫書大全』”,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42. 錦裏散人, “『宜彙』”,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 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43. 嚴用和, “『濟生方』”,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44. 都鎮羽, “『東西醫學要義』”,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 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45. 黃度淵, “『醫方活套』”,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46. 危亦林, “『世醫得效方』”,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47. 李昌雨, “『壽世寶訣』”,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48. 徐大椿, “『蘭臺軌範』”,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 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49. 黃度淵, “『附方便覽』”,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50. 劉完素, “『宣明方論』”,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 上 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51. 李麟幸, “『袖珍經驗神方』”,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 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52. 沙圖穆蘇, “『瑞竹堂經驗方』”,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CD],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53. 實錄廳 편, “『世宗實錄』”, 조선왕조실록[온라인], 국사 편찬위원회.
54. 尹壕 외, “『救急簡易方諺解』”,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 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55. 許浚, “『諺解臘藥症治方』”,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 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56. 저자 미상, “『若山好古腫方撮要』”, 한의학지식정보자 원웹서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57. 저자 미상, “『良方金丹』”,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 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58. 野呂實夫, “『朝鮮人筆談』”,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 비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59. 李鎮夏, “『解惑辨疑』”,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60. 徐有渠, “『仁濟志』”,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온 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
61. 저자 미상, “『本草精華』”,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 스[온라인], 한국한의학연구원.